광주 43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유럽서 입국…광주 도착 직후 시설격리 접촉자 없어

전남도 2명 확진…전국 신규환자 5일만에 20명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만에 20명 후반대로 떨어졌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확진자가 각각 2명씩 늘었다. 모두 해외 입국자들로 다행히 지역 내 감염은 없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만146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6일 이후 5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최근 며칠간 크게 증가했으나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증가폭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5~26일 이틀간 10명대에 머물다가 27일 쿠팡물류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40명으로 늘었고, 이튿날인 28일에는 배 수준인 79명으로 급증했으며 이어 29일에 58명, 30일에 39명이 각각 확진됐다.

하지만 이번 쿠팡물류센터발 연쇄감염도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돼 가던 국면에서 예상치 못하게 터졌듯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1일 신규 확진자 27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감염이 15명, 해외유입 12명이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없다. 지역별로는 78% 정도인 2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경기 12명, 서울 6명, 인천 3명 등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에서 2명, 부산·대구·대전·제주에서 각 1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는 전날 1명이 추가돼 총 270명이 됐다.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7명 늘어난 1만405명, 치료 중인 환자는 19명 늘어난 793명이다.

광주에선 지난 29일 43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로, A씨는 영국, B씨는 러시아에서 입국해 받은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소방학교 생활관에 시설 격리돼 접촉자는 없다. 전남도 역시 지난 30일 러시아에서 입국한 50대 여성, 31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미국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우주인 2명이 탑승한 크루 드래건 캡슐을 탑재하고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대를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5개까지 구매

정부, 수급 상황 개선…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생산 늘릴 것

이달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달리했던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면서 평일·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이달부터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5부제를 폐지했다.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이뤄진다.

정부는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들을 위한 구매 수량도 늘렸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3개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5개까지 2개 더 살 수 있다.

식약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세 이상 성인은 기존대로 주당 구매 수량이 3개로 유지된다.

정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고 수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 공급 비율도 80%에서 60%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여름철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새로 만들어 허가 및 생산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연합뉴스

대통령 전용기 바뀐다…내년 11월 첫 비행

정부, 대한항공 B747-8i 5년간 임차 …보안장비 등 개조

'한국판 에어포스원'인 새 대통령 전용기가 내년 11월 첫 비행을 한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이용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설비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보잉사의 747-8i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자랑한다. 최대 14시간에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이런 제원은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의 747-400기종보다 운항 거리가 약 2300km 더 길어진 것이다. 동체도 기존보다 더 커졌다.

전용기 1대를 5년간 임차하는 비용은 3003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 한도(3057억원) 범위 안이긴 하나, 앞서 1, 2차 임차계약이 체결된 2010년, 2015년 당시 각각 1157억원, 142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2배가량 올랐다. 국방부 당국자는 "신형 항공기의 기체 가격 자체가 비싼 데다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임차 비용도 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새 대통령 전용기인 747-8i는 보안장비와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통신 장비 등 개조에 착수하게 된다.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을 비롯해 수행원석 등 내부 개조를 비롯해 외부 도색 작업 등도 진행된다. /연합뉴스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하고 싶다"

호주·러시아·인도도…9월께 개최 추진 "중국문제 논의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당초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께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비(非) G7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것(G7 정상회의)을 연기하려고 한다"며 "이는 G7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뉴욕에서 유엔 연차총회가 열리는 9월에 개최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은 당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터지면서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그러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워싱턴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개최 확정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현재 최고의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멤버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외 국가 초청 의향을 밝힌 것이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을 만들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G7 플러스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해 보인다. /연합뉴스

美 스페이스X, 첫 민간 유인우주선을 쏘다

NASA 비행사 태운 '크루 드래건'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이 지난 30일(현지시간) 힘차게 날아올랐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이날 오후 3시 22분(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31일 오전 4시22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쏘아 올렸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9년 만이다.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는 유인 우주선을 처음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주인공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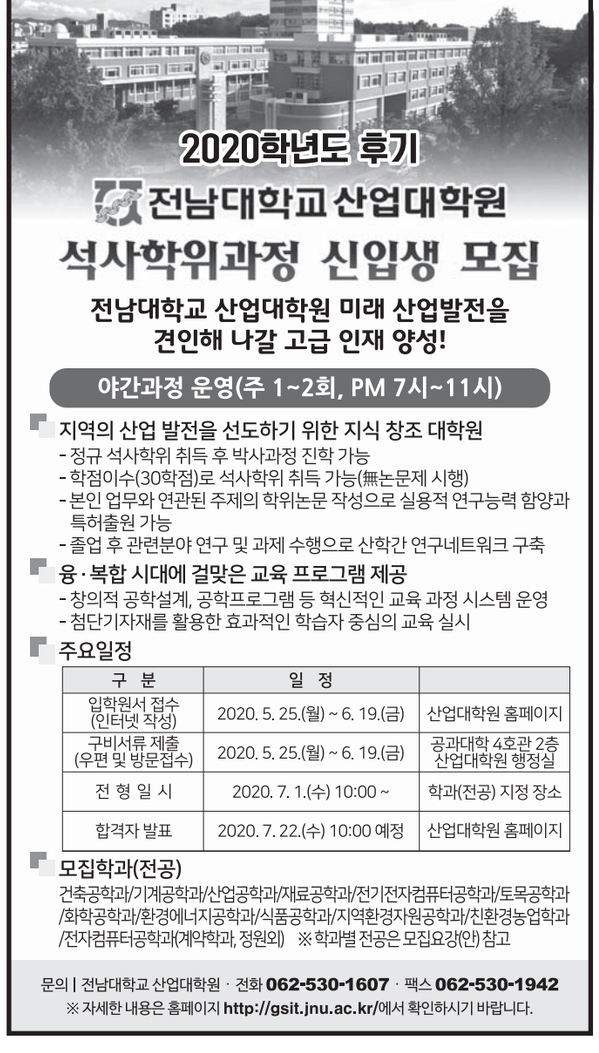
크루 드래건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이날 굉음을 내며 케네디우주센터의 39A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향했다. 39A 발사대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린 영광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크루 드래건에는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53)와 로버트 벤켄(49)이 탑승했으며, 이들은 400㎞ 상공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하게 된다. 헐리는 크루 드래건 발사와 귀환을 담당하며, 벤켄은 도킹 임무를 책임진다. 두 사람은 ISS 안착에 성공할 경우 짧게는 1달, 길게는 4달까지 ISS에 머물며 연구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크루 드래건은 스페이스X의 화물 운반용 우주선을 유인 우주선으로 개조한 것으로, 최대 수용인원은 7명이지만 이번에는 우주비행사 2명만 탑승했다. 크루 드래건은 이전의 유인 우주선과 달리 버튼이 아닌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며, 우주비행사들은 크루 드래건 좌석에 맞게 제작된 날렵한 형태의 우주복을 착용했다.

이번 발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 기술력을 과시하며 상처받은 자존심을 추스를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우주센터를 찾아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발사를 본 뒤 "믿을 수 없다(incredible)"고 말했다. /연합뉴스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6. 2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6.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19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임원(비상임 이사) 공개모집공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공단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주요직무내용
비상임 이사	4명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경영 정책을 심의 · 의결

2 응시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단 정관 제16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비상임 이사]
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나.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수준)

- 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

4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연임가능)
- 보 수 :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만 지급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6. 1. ~ 2020. 6. 16.
- 접수기간 : 2020. 6. 2. ~ 2020. 6. 16. (9:00~18:00)
※ 단 토 · 일 · 공휴일은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1번길 2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1층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062) 960-9937
- 제출서류 : 공단 홈페이지(http://gsfmc.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① 임원후보지원서(소정양식) 1부 [별첨 1]
②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별첨 2]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지원 직위 담당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기관 운영방침 및 경영 혁신 계획을 포함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 5매 이상인 경우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③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별첨 3]
④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1차 최종합격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⑥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소정양식)

6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추천후보자) : 개별 통지(공고)

7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gsfmc.or.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 착오 ·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모자 수가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미만일 경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며 기존 응모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단 경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2) 960-9937

※ 기타 직무수행요건, 제출서류, 전형방법 및 유의사항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gsfm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